

노인의 사회적 역할 유형과 삶의 만족*

이 소 정**

◀ 요약 ▶

본 연구는 고령화 문제의 핵심이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 박탈에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대표적인 세 가지 사회적 역할 유형, 즉 가족돌봄, 사회참여, 근로활동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또 각 사회적 역할 유형이 노인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에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데이터(KLoSA)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t-test와 ANOVA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세 가지 사회적 역할 유형의 결정변인 및 사회적 역할 유형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돌봄의 역할은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수가 많은 반면 가구의 소득수준은 낮은 경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역할은 특히 건강수준이 양호한 여성노인일수록 이같은 사회적 역할 수행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족돌봄 역할의 수행 정도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참여 역할의 결정요인은 높은 인적자본 변인, 즉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로 분석되었으며 세 가지 역할 유형 중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로활동의 결정요인은 낮은 교육수준과 읍면부 중심의 농어촌지역 거주, 낮은 연령, 남성, 좋은 건강상태 등이 결정변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138).

**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조교수(snowvill@nsu.ac.kr).

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삶의 만족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년기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 사회 참여를 위한 공공 및 민간 인프라의 활성화 등의 정책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노인, 삶의 만족, 사회활동

1. 서론

영국의 사회철학자 라슬렛(Laslett, P.)에 의하면 노년기는 ‘제 3기 인생’으로서 진정한 자기실현의 시기로 규정된다. 즉 노년기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단계이자, 경제적 혹은 육체적으로 의존적이지 않으면서도 인생이 부여하는 각종 사회적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가장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달리 지표가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노년기 현실은 암울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OECD 26개국 중 22위를 차지한다(OECD, 2006). 또한 우리나라가 OECD 30개국 중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점, 특히 남자노인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며, 언론을 통해 보도된 노인자살 관련 기사 가운데 신병비관으로 인한 자살이 가장 빈번했다는 점은 노년기가 자아실현의 시기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노인의 사회적 역할 상실과 그로 인한 사회적 배제, 고독의 문제가 존재함은 이미 공유되고 있는 바이다. 생산력이 가장 지배적인 가치규범이자, 노동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구성되는 산업사회에서 ‘은퇴’와 함께 노인의 사회적 역할은 박탈된다. 더욱이 이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 가족단위에도 영향을 미쳐, 노인의 사회적 역할 상실의 문제는 가족 내에서의 지위하락 및 헤게모니 상실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우리의 현실이 전통적 가치규범의 붕괴와 압축적 고령화, 사회제도적 미준비라는 복합적인 ‘전환기’적 상황임엔 분명하지만, 동시에 변화된 조건 속에서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의 맹아적 형태가 출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족 내

에서의 역할로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가족 내 돌봄역할의 공백과 이에 대한 사회제도적 대책의 미비의 ‘틈새’를 노인들이 채우는 것이다. 두 번째 형태는 ‘실버 자원봉사단’ ‘실버밴드’ 등과 같이 각종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 규범이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근로활동으로서 제2의 커리어 또는 정년 연장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근로활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의 역할과 관련된 논의는 그 이론적 뿌리를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에 두고 있다. 그러나 생산적 노화 개념은 생산성을 강조하는 후기산업사회의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투영되어 개인의 생산성을 잣대로 노화에 대해 판단하려 하며 개인의 삶의 질의 관점에서 노화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재 출현하고 있는 노인의 사회적 역할 유형을 삶의 만족도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통해 향후 노인들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밝혀내고자 하는 시도는 지금까지 꾸준히 존재했으며(권중돈·조주연, 2000; 김영미·유영주, 2001; 이호성, 2005), 사실상 노인복지 연구에서 가장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노인의 역할과 연계된 관점에서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거나, 혹은 노인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 가운데 어떤 것이 삶의 만족도에 더 기여하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준해 바람직한 노인의 사회적 역할 유형에 대해 논의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없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 생활만족도 등 유사한 의미를 갖는 개념들과 자주 혼용된다. 각 개념에 대한 논자들의 정의도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주관적 상태’에 대한 강조이다. 가령, Neugarten et al.(1961)은 삶의 만족을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자아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현재 약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낙천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Maddox(1987)는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감정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정의하고 있으며 Medely(1976)는 “개인의 기대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은 모두 물질적 혹은 정신적으로 인생의 목표나 욕구, 현재의 지위와 활동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삶의 만족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¹⁾.

두 번째는 ‘다차원성’이다. 김상균 외(1996)는 삶의 질이란 사회적 조건과 사회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개인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만족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인간의 행위와 사고가 작용하는 모든 영역과 관련된 개념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삶의 질 척도를 구성하는 기준으로 “객관적·주관적” 차원과 “물질적·비물질적” 차원을 교차하여 삶의 질에 관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삶의 만족을 측정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에서 이러한 ‘다차원성’이 반영되어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된 지표를 통해 삶의 만족을 측정하지만 반면, 삶을 구성하는 수많은 영역들을 어떻게 종합하여 ‘삶의 질’이라는 종합적이고 단일한 척도를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2) 노년기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

Pillemer 등(2000)은 개인의 삶에 역할이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역할증진(role enhancement)’과 ‘역할통제(role restraint)’의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제시했다. 한 가지는 ‘역할 증진(role enhancement)’의 관점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는 사회

1) 간혹 노년기의 바람직한 규범에 대해 정의한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개념이 삶의 만족 등의 개념과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George(2006)는 성공적 노화 개념은 개인의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공적 노화와 삶의 만족을 구분한다. 즉, 삶의 만족이 강한 주관적 판단에 의한 개념이라면 성공적 노화는 객관화된 가치규범이라는 것이다.

적 정체성 또는 역할의 누적에 개인에게 유익을 준다는 가정이 내재되어 있다. 즉, 다양한 역할을 통해 개인은 사회에 통합되고, 이를 통해 자존감, 자원, 감정적 조응, 사회적 인정과 자아정체감의 증진 등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Moen(1997)은 이러한 논리를 실증하는 분석을 통해 실제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이 건강과 수명을 증진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역할 통제(role strain)’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 수행시의 편익보다 비용이 강조된다. 직장과 가정에서의 이중 역할로 인한 취업여성의 스트레스가 대표적인 예가 되며 이렇듯 개인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로 인해 삶의 질이 훼손된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역할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같은 논의는 노년기라는 생애주기의 특수한 국면에 특화된 논의가 아니다. 이하에서는 노년기에 초점을 맞추어, 노년기와 사회적 역할 박탈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이론과 노년기에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노년기의 특성을 사회적 역할 박탈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대표적으로 역할이론(role theory)이다. 역할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 파악하게 되고 자아개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사회적 역할은 전형적으로 연령이나 생애단계와 연결되어 있는데 연령규범이 그 매개체가 된다. 여기서 연령규범이란 특정 연령의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거나 해야만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믿음이라 할 수 있다. 역할이론에서는 노년기를 새로운 역할을 취득하기보다 이전에 수행하던 역할을 상실(ex. 퇴직)하는 생애단계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상실은 노인들의 사회적 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Hooyman & Kiyak, 2005). 또한 노년기에는 역할의 단절도 경험할 수 있다. 역할단절은 이전에 배웠던 것들이 쓸모없게 되거나 이후의 삶에 충돌을 일으키는 현상 또는 노년기에 이르러 기존의 역할이 애매해지는 경향을 일컫는다. 이처럼 역할이론은 사회적 역할의 상실, 단절의 발생이라는 관점에서 노년기의 특성을 규명한다(김정석, 2007).

한편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지속성이론(continuity theory)은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는 대표적인 노년학 이론이다.

활동이론은 성공적인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 활발히 수행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분리이론과 반대의 위치에 있으며 노인이 얼마만큼 새로운 역할을 찾는지 여부는 노년기의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구자순, 1992에서 재인용). 활동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적 자아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긴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환경, 개인, 그리고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이 노인들이 경험하는 노화과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 학자가 미드(G.H.Mead)인데, 미드는 주체적 자아(I)와 객체적 자아(Me)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아정체성이 형성됨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노년기의 자아정체성도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I가' '노인'이라는 사회적 정의인 'Me'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노년의 상은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적합한 역할을 찾는 것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지속이론은 활동이론과 마찬가지로 노년기 역할의 긍정성에 대해 강조하지만 역할과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한다. 지속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상실한 역할을 유사한 역할로 대체하는 한편 자신에게 전형적인 환경적응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일관적인 행동유형을 지탱하려 한다. 노화와 더불어 잃어버린 역할에 대하여 비슷한 역할로 대치하고자 하며, 자신의 전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환경에 적응한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큰 변화를 하지는 않으며, 성인기 동안 형성된 특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인생경험과 비슷한 활동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관점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미 더 젊었을 때 이룩했던 것을 더욱 추구하고자 한다고 본다. 나이가 들에 따라 개인적 특성은 더 분명해지고,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도 더 완고해진다(정경희, 2006에서 재인용).

이상의 논의는 노년기에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과 아울러 새로운 논점을 던져 주는데, 과연 노년기에 박탈되는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지속이론의 맥락을 따른다면 노년기의 사회적 역할은 비노년기의 사회적 역할과 같은 규범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활동이론의 맥락에서는 새로운 역할 규범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3) 노인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 유형과 삶의 만족도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란 한마디로 규정되기 어렵다. 앞서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듯, 사회적 역할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상할 수 있는 역할규범 또한 개인의 선호와 조건에 따라 다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역할과 유사하게 활용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참여, 사회활동 등이 있는데, 이들 개념의 정의도 논자마다 다양한 것은 역시 개념의 바운더리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윤종주(1994)는 사회참여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구분해, 한 사회집단이 가지고 있는 요구를 표현하고 공동이익을 옹호하며 특정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적 활동이 협의의 개념이라면 광의의 개념에는 취업활동, 지역사회조직 및 단체활동까지 포괄한다. 김영범·이승훈(2008)은 사회활동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혼자서 하는 활동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참여, 사회활동, 사회적 역할은 외관상 그 경계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사회참여가 좀 더 활동·역할의 공적 ‘조직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사회활동은 사람 간 또는 사람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성’에 방점을 둔다. 이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 역할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위치와 기대되는 행동을 뜻하며 따라서 ‘조직적 활동’이거나 타인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사적이거나 비공식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활동까지 포괄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시장가치를 지니고 있는 활동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이나 주위사람들에 대한 비공식적 지원활동과 같은 비경제적 활동까지 유의미한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Klumb & Baltes(1999)의 논의와, 유급노동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한 Hooyman & Kiyak(2005)의 논의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은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규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해 준다. 한 가지 기준은 ‘공식성 vs 비공식성’으로서 이는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수행되는 영역이 공식적인 영역인가 비공식적인 영역인가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기준은 ‘유급 vs 무급’으로서 이는 역할 정체성이 유급에 의해 규정되는가 무급에 의해 규정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두 가지 기준을 교차시키면 다음 [표 1]과 같은 매트릭스가 구

성될 수 있다.

[표 1] 노인의 사회적 역할 유형

	무급	유급
비공식적	가족 내 돌봄	
공식적	사회참여	근로활동

비공식적 영역에서 무급으로 수행되는 대표적인 노인의 역할은 가족 내 돌봄, 이웃에 대한 돌봄 등과 관련된 것이다. 선행연구들 역시 지금까지 노인이 지원의 수혜자로만 인식되어 온 것과 차별적으로 노인의 비공식적 지원 활동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Klumb & Baltes, 1999; 전해정, 2003). 특히 한국노인들의 경우 서구와 달리 공식적 봉사활동 보다 비공식적 가족돌봄 활동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정경희, 2004). 한편, 구체적으로 비공식적 영역에서 무급으로 수행되는 노인의 역할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해정(2003)은 노인의 비공식적 지원활동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를 통해 비공식적 지원의 수혜자에 따라 그리고 지원형태에 따라 정신건강에 차이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승용·정미경(2006)은 손자녀 돌봄에 대한 조모의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손자녀 돌봄 수행을 통해 손자녀와의 접촉 횟수가 높아져 외롭지 않으며 고부간의 갈등도 해소되는 반면 신체적 피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족돌봄의 역할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지, 즉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혹은 여건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따라 노인 개인에게 상반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권인수, 2000; 장혜경 외, 2005). 한편 김은정·정순돌(2011)은 조모의 손자녀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와 강한 부적 상관을 가지며 적절한 양육보상이 있어야만 양육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해 줄 수 있음을 제시했다.

공식적 영역에서 무급으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노인의 역할은 각종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규정된다. 무엇이 사회참여활동인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기 어렵지만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며 무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활동,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정치단체활동, 종교단체 활동, 사교단체 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예가 될 수 있

다(이소정, 2007). 사회참여의 활동은 비공식적 영역의 무급활동인 가족돌봄 활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발적 의지에 의해 수행될 확률이 높다. 실제 선행연구의 결과 각종 사회참여 활동이 생활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는데 김영범·이승훈(2008)은 사회참여 활동을 종교활동, 여가활동, 공공단체, 연고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이 노인이 느끼는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종교활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회활동 유형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주현·한경혜(2001)는 연령, 교육수준, 경제상태, 건강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보다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양순미 외(2004)는 농촌노인의 사회활동과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결과 적극적인 사회활동태도를 지닌 농촌노인이 그렇지 않은 농촌노인에 비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다는 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공식적 영역에서 유급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의 사회적 역할에는 노인의 근로활동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다수의 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노인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형태의 사회적 역할이 노인들의 실제 생활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한다. 김소향·이신숙(2009)은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들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보다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한형수(2004)와 김미혜(2001) 등도 노인의 경제활동을 삶의 만족 및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 바 있다. 이처럼 노인의 근로활동이 삶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분석되는 배경에는 근로활동을 통해 가계경제가 안정되고 규칙적 생활을 통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 등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에 근거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 첫째, 노인의 가족돌봄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둘째, 노인의 사회참여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셋째, 노인의 근로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된 주요 변수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이다. 삶의 만족도가 갖는 다차원성과 주관성에 주목해, 경제적 만족도, 건강 만족도, 동년배 비교 상대적 만족도의 합산으로 정의하였다. 값은 0~300 사이의 값을 갖는다.

[표 2] 변수의 정의

변수		정의
통제 변수	성	남자, 여자
	연령	65세 이상 (연속변수)
	종교	유, 무
	지역	읍면부, 중소도시, 대도시
	교육수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건강상태	IADL 점수 합(연속변수)
	배우자유무	유, 무
	가구원 수	(연속변수)
가구총소득	가구구성원들의 소득의 총합	
독립 변수	가정내돌봄	1년간 가족의 ADL 및 IADL 수발에 소요된 총 시간 = 주당 평균 수발소요시간 × 수발기간(주)
	사회참여	각종 모임(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단체, 동창회/행우회/중친회,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기타) 참여 횟수 ²⁾
	근로활동	(사업장 고용 및 자영업) 주당 평균노동시간
종속 변수	삶의만족	건강상태 만족도, 경제상태 만족도, 동년배비교 상대적 만족도의 합

다음으로 독립변수는 노인들의 대표적인 사회적 역할 유형으로서 가족 내 돌봄, 사회참여, 근로활동 등 모두 세 가지이다. 세 변수 모두 연속변수로서 각 역할 수행에 투입

2) 모임 단체별 참여 빈도는 각각 다음과 같은 10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사회참여 형태별 10점 만점 척도의 총합계 점수로 사회참여 빈도를 측정하였다(10=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9=일주일에 한번 정도/8=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7=한 달에 한 번 정도/6=한 달에 두 번 정도(2주에 한 번 정도)/5=일 년에 한 두 번 정도/4=일 년에 서너 번 정도(3~4개월에 1번)/3=일 년에 대여섯 번 정도(2개월에 한 번 정도)/2=일 년에 거의 볼 수 없음/1=거의 활동하지 않음/0=활동하지 않음).

되는 절대적 시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역할의 정도·비중에 관한 정보를 담도록 하였다.

통제변수로는 모두 9가지 변수가 투입되었다. 개인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으로서 성별, 연령, 종교유무, 거주지역의 변수가 투입되었으며 인적자본의 특성 변수로서 교육수준과 건강상태가 투입되었다.

박순미(2011)는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유사하게 허성호·김종대(2011)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좋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종교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 상반된 선행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가령, 서문진희(2010)는 종교가 없는 노인들이 종교가 있는 노인들에 비해 우울정도가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으며 또한 종교모임에 자주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 점수가 향상됨을 통계적으로 증명했다. 반면 남기민·박현주(2010)는 노인의 종교활동 참여는 삶의 만족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사회활동 참여는 삶의 만족도와 정(+)의 영향이 있음을 주장해 종교활동보다 일반적인 사회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교의 영향은 연구에 따라 다소 상반된 주장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종교변인에 대한 추가적인 통계적 검증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혜자·전동일(2011)은 농촌과 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비교 분석했으며, 그 결과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계수의 구조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경희·조덕호(2013)는 도시와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변인을 분석해 노인복지정책의 지역별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한 연구에서 도시와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변인의 구조가 상이함을 제시하였다.

정순돌·성민현(2012)은 연령집단별로 사회적 자본에 차이가 발생해 삶의 만족도 차이가 나타나게 됨을 주장해 직접적으로 연령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한 것은 아니지만 연령집단별로 존재하는 명확한 차이가 삶의 만족도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미령(2013)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노후연령인식 여부에 따른 성공적 노화 구성 요소의 차이와, 그 차이가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자신을 노후연

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는 관계를 나타냄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령집단 또는 연령에 대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와 매개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김미령(2012)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성별의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데 연령과 성별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남성 고령자, 여성 고령자, 남성 중고령자, 여성 중고령자의 네 집단으로 구분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남성 중고령자의 삶의 질이 가장 높고 여성고령자의 삶의 질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어 연령과 성별의 결합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교육수준은 많은 연구들에서 중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정의되고 있다. 노인의 생활만족도 측면에서 교육수준 변인을 주목한 이정의(2010)의 연구에서는 한국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교육수준별로 실증분석한 결과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인들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독립변수인 가정 내 돌봄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가족자원 변수로는 가구원 수를 고려하였으며 선행연구에 의해 노인의 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된(이소정, 2007) 배우자유무도 포함되었다. 김영범·박준식(2004) 한국노인들의 가족관계망 유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중심형 가족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유무가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원의 변수로는 노인 개인의 소득과 가구의 소득 두 가지 변수가 투입되었다. 노인의 소득과 가구소득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으나 가구 내에서 노인의 지위와 여건에 따라 가구 내 자원에 대한 노인의 공유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구소득은 노인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노인이 속한 가구의 경제적 여건은 노인 개인의 삶의 만족 및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분석에 투입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고령사회를 대비해 고령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6년도부터 전국(제주도 제외)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조사 내용은 인구,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만족도 등의 7개 영역을 포괄하

고 있으며 표본 수는 약 10,000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4,155명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노인의 사회적 역할 유형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우선, 노인의 특성별로 삶의 만족도 차이를 검증하고(t-test, ANOVA), 회귀분석을 통해 노인의 각 사회적 역할 유형을 결정하는 변인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역할 유형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4. 분석결과

1) 기술통계분석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은 [표 3], [표 4]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1차 고령화패널데이터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추출한 표본의 수는 4,155명이었다. 가족들의 돌봄에 소요되고 있는 평균 시간은 연간 약 72.37시간(주당 약 1.3시간)으로 나타났다. 최소값 0시간에서 최대값 17,472시간으로 나타나 수발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 1인 이상을 동시에 수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참여의 경우 7가지의 사회참여 형태별 10점 척도로 참여 빈도를 측정하였으며 따라서 0점에서 70점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평균 약 6(5.99) 정도의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척도상의 점수분포로 보았을 때 ‘한 달에 두 번 정도’에 해당하는 빈도이다. 즉, 여러 형태의 사회참여를 모두 합해 표본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사회참여와 관련된 모임 및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당 평균 근로활동에 소요하고 있는 시간은 7.56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4]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삶의 만족도 평균과 집단별 차이를 t-test 또는 ANOVA를 통해 검증한 결과이다.

가구원 수는 2~4인 가구의 분포가 가장 높았으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IADL의 경우 IADL 제약이 없는 집단과

제약이 있는 집단 간에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가 30점 이상 큰 차이를 보여, 삶의 만족도와 건강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모두 고소득일수록 삶의 만족도 평균이 높았으며 교육수준 역시 소득과 마찬가지로 고학력자들의 삶의 만족도 평균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에는 삶의 만족도 평균점수에 미비한 차이밖에 없었으며 연령이 낮은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 집단의 삶의 만족도 평균이 더욱 높았다.

한편, 성별의 경우 남성 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 평균치도 현격한 차이를 보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만족도가 20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농어촌지역 노인들이 겪고 있는 인프라의 취약성이 지적되어 온 것(오영희, 2005)과 달리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중소도시나 읍면부를 중심으로 한 농어촌지역 거주 노인의 삶의 만족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어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post-hoc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가구원수의 경우 1인 가구, 2~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모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삶의 만족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의 경우에도 모든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만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사회적 역할 유형별 표본의 평균 점수

		가족 내 돌봄	사회참여	근로활동
사례 수	유효	4155	4155	4155
	결측	0	0	0
평균		72.37	5.99	7.56
최소값		.00	.00	.00
최대값		17472	39	140

[표 4] 기술통계치

		사례수	삶의 만족도	T/F값
가구원수	1인가구	621	128.68	33.19***
	2~4인가구	2943	149.14	
	5인 이상	591	154.62	
건강상태(iadl)	.00	3121	155.98	16.298***
	1.00	1034	119.33	
가구소득	저(1~3분위)	1679	131.94	114.185***
	중(4~7분위)	1379	156.38	
	고(8~10분위)	623	169.76	
종교	무	1887	144.91	-1.834*
	유	2268	148.48	
연령	75세 미만	2676	151.48	6.313***
	75세 이상	1479	138.5	
교육수준	초졸 이하	3020	138.37	79.878***
	중졸	408	159.95	
	고졸	502	170.36	
	대졸 이상	222	185.05	
성별	여성	1736	157.2	9.105***
	남성	2419	139.44	
지역	대도시	1748	144.49	2.655*
	중소도시	1207	149.84	
	읍면부	1200	147.31	
배우자	무	1554	134.04	-10.201***
	유	2599	154.54	
Total		4155	146.86	

주: * p<.10 ** p<.01 *** p<.001.

[표 5] post-hoc test를 통한 집단 간 차이 분석

			평균차(I-J)	표준오차
가구원수	1인 가구	2~4인 가구	-20.46	2.74***
		5인 이상	-25.94	3.57***
	2~4인 가구	1인 가구	20.46	2.74***
		5인 이상	-5.48	2.80
가구소득	저(1~3분위)	중(4~7분위)	-24.45	2.18***
		고(8~10분위)	-37.82	2.82***
	중(4~7분위)	저(1~3분위)	24.45	2.18***
		고(8~10분위)	-13.38	2.90***
고(8~10분위)	저(1~3분위)	37.82	2.82***	
	중(4~7분위)	13.38	2.90***	

			평균차(I-J)	표준오차
교육수준	초졸 이하	중졸	-21.58	3.21***
		고졸	-31.99	2.94***
		대졸 이상	-46.68	4.23***
	중졸	초졸 이하	21.58	3.21***
		고졸	-10.41	4.06*
		대졸 이상	-25.09	5.08***
	고졸	초졸 이하	31.99	2.94***
		중졸	10.41	4.06*
		대졸 이상	-14.69	4.91*
	대졸이상	초졸 이하	46.68	4.23***
		중졸	25.09	5.08***
		고졸	14.69	4.91*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5.35	2.34*
		읍면부	-2.82	2.35
	중소도시	대도시	5.35	2.34*
		읍면부	2.53	2.55
	읍면부	대도시	2.82	2.35
		중소도시	-2.53	2.55

주: * p<.10 ** p<.01 *** p<.001.

2) 노인의 사회적 역할유형 결정요인 분석

이하의 [표 6]에서는 가족돌봄, 사회참여, 근로활동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가족돌봄 역할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종교, 지역, 학력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가 많고 배우자가 있을수록 가족내 돌봄노동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인구학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성 노인일수록, 연소고령층 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족 내 돌봄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가구의 경제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가족돌봄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 경제상태와 가족돌봄 역할수행은 부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참여 역할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성별과 배우자 유무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지역에 거주하고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사회참여 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가구 소득수준이 높고 학력수준이 높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참여 활동 수행가능성이 높았다. 인구학적 측면에서 보면 연령이 낮은 연소고령층 일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사회참여 활동의 수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이 보유한 물질·인적 자원의 수준은 높으면서도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수가 적어 자녀 및 손자녀 세대에 대한 돌봄 의무의 정도가 약할 때 노인의 사회참여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교 변인은 여러 변인 중 사회참여 정도를 가장 크게 결정짓는 변수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노인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인프라가 상당부분 미비한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종교기관이 유의미한 사회참여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근로활동의 경우 종교와 배우자 변인, 그리고 가구소득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노인일수록, 연령이 젊은 수록 근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크게 일치한다. 또한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에 거주할수록 근로활동 참여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도 우리나라 노인 경제활동의 대다수가 농어업 종사에 해당된다는 통계적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정경희 외, 2005). 한편,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근로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65세 이상인구 중 상대적으로 인적자본의 수준이 낮은 노인들이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사회의 고령노동의 증가를 노인빈곤에서 찾는 기존의 논의(박경숙, 2003)를 뒷받침한다. 또한 근로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양호한 건강상태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근로활동 가능성이 높다는 본 분석의 결과를 통해서도 반영되고 있다.

[표 6] 사회적 역할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가족돌봄		사회참여		근로활동	
	베타	t	베타	t	베타	t
(상수)		-2.443*		4.792***		12.357***
성별	.066	3.266***	-.023	-1.231	-.222	-11.694***
연령	.040	2.138*	-.042	-2.363*	-.188	-10.551***
종교	-.013	-.757	.224	14.123***	-.013	-.815

	가족돌봄		사회참여		근로활동	
	베타	t	베타	t	베타	t
지역	-.025	-1.458	-.028	-1.758*	.121	7.540***
학력	.010	.550	.193	11.091***	-.080	-4.539***
건강상태	-.042	-2.354*	-.134	-7.989***	-.065	-3.840***
배우자	.071	3.563***	.013	.714	.028	1.495
가구원수	.088	4.892***	-.041	-2.432*	-.045	-2.693**
가구소득	-.054	-3.057**	.057	3.461***	.027	1.630
F값	5.901***(df=9)		68.592***(df=9)		60.18***(df=9)	
R2	.014		.144		.129	

주: * p<.10 ** p<.01 *** p<.001.

3) 노인의 사회적 역할유형과 삶의 만족도

노인의 사회적 역할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모형 1은 세 가지 사회적 역할 유형을 제외하고 통제변수들의 영향력만을 검증한 모형이며 모형 2는 세 가지 사회적 역할 유형을 투입한 모형이다.

모형의 설명력은 첫 번째 모형에 비해 두 번째 모형이 약간 높아졌으며, 모형이 약 20%(R2=0.19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변수 가운데 성별과 종교 변수만 제외한 나머지 변수 모두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준화 회귀계수(Beta)를 통해 변수의 영향력 정도를 비교해 보면, 건강상태, 학력 및 가구소득 등의 변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고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있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 삶의 만족도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세 가지 사회적 역할 유형을 분석에 투입한 두 번째 모형 결과 가족돌봄 역할 수행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반면 사회참여와 근로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 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상반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표준화 회귀계수로 비교했을 때 세 가지 역할유형 중 삶의 만족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참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소득수준이나 학력, 건강상태 등 여타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다. 한편 가족돌봄, 사회참여, 근로활동 등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각 독립변인으로 분석에 투입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관관계와 그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10보다 월등히 작은 값을 가져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Model 1			Model 2		
	베타	t	VIF	베타	t	VIF
(상수)		4.696***			2.810**	
성별	-.032	-1.738	1.517	-.007	-.394	1.578
연령	.063	3.622***	1.331	.086	4.961***	1.376
종교	.016	1.025	1.074	-.014	-.919	1.132
지역	.062	3.965***	1.078	.054	3.513***	1.096
학력	.177	10.361***	1.298	.158	9.178***	1.348
건강상태	-.283	-17.194***	1.197	-.261	-15.904***	1.225
배우자	.098	5.396***	1.461	.097	5.412***	1.468
가구원수	.049	3.006**	1.196	.063	3.861***	1.208
가구소득	.173	10.607***	1.173	.160	9.942***	1.181
가족돌봄				-.045	-3.046**	1.016
사회참여				.138	8.644***	1.171
근로활동				.084	5.290***	1.148
F값	84.809***(df=9)			74.911***(df=12)		
R2	.172			.197		

주: * p<.05 ** p<.01 *** p<.001.

5. 결론 및 함의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노인과 함께 사는 가구원수가 많은 반면 가구의 소득수준은 낮은 여건에서 노인은 더욱 높은 수준의 가족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개인의 여건보다 가구의 여건이 돌봄으로 인한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울수록 노인이

돌봄노동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여성노인이며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이러한 사회적 역할 수행의 가능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사회참여 역할의 결정요인 분석은 이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노인 개인의 인적자본 변인은 가족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며(높은 교육수준, 높은 가구소득) 가구원 수가 많지 않은 여건에 있는 노인의 사회참여 역할 수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근로활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낮은 교육수준과 읍면부 중심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연령이 낮고 남성이며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으로서 이러한 결과는 아직 고령인구에 대한 노동시장의 개방정도가 취약한 우리의 현실에서 근로활동 중심의 사회적 역할이 저학력 노인 또는 농업종사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세 가지 사회적 역할은 모두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돌봄 역할 수행은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근로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회참여의 역할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노인의 사회적 역할 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먼저 이론적 함의인데, 노인의 사회적 역할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존의 논의 중 상이한 관점을 취했던 활동이론과 지속이론 가운데 본 연구의 결과는 활동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지속이론은 비노인기의 활동에 대한 지속성을 통해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인데, 세 가지 역할 유형 중 지속이론의 관점에 가까운 것은 근로활동과 가족돌봄 활동이다. 반면 활동이론은 비노인기와는 달리 노년기에 맞는 새로운 역할유형을 찾아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으로서, 세 가지 역할 유형 가운데 사회참여 활동이 이에 속한다. 분석의 결과 사회참여의 역할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결론적으로 지속이론에 비해 노년기에 새로운 역할규범을 찾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음은, 정책적 함의로서 가족돌봄 역할의 수행 정도가 높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노인의 삶의 만족을 볼모로 노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므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저소득가구 대상의 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시키는 것은 노인복지의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역할 유형이 여러 가지 사회참여라는 점에 주목해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반 인프라의 구축이 노인 삶의 만족도 향상에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노인 사회참여 시설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사회참여 시설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공공시설은의 대표적인 예가 노인복지회관이다. 노인복지회관은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별 1개도 보유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다수이다. 또한 앞서 분석 결과 사회참여 정도가 높은 노인들은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이다. 따라서 높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포함해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의 참여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예컨대 노인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여가문화 바우처제도 도입, 노인 사회참여프로그램 경진대회 등을 통한 민간 시설 인프라의 확충 및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 유형 가운데 삶의 만족도 관점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 유형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둔 탐색적 연구이다. 따라서 향후 바람직한 노년기 역할 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화된 후속연구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돌봄 활동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라는 관점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임을 증명하였는데 어떠한 측면에서 가족돌봄 활동이 부정적인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논의를 시도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가족돌봄의 어떠한 요소가 삶의 만족도와 부정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 이론적으로 보다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사회적 역할 유형이 상호 연관되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즉 사회적 역할유형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참여 활동과 근로활동 모두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변인의 속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각 사회적 역할 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기여하게 되는 상이한 매개변인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각 사회적 역할 유형이 어떠한 변인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

키는지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년기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 유형 가운데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인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어떤 사회적 역할이냐의 문제보다 그 역할을 얼마만큼 자율적인 의지로 선택했는가의 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개인의 주관적 판단 변인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2차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한계로서 데이터의 보완과 분석의 보완을 통한 후속적 과제로 남기는 바이다.

■ 참고문헌 □

- 구자순(1992). 한국 사회노년학 연구와 이론적 발전. 한국노년학, 12(1), 97-113.
- 권인수(2000).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지지. 아동간호학회지, 6(2), 212-223.
- 권중돈·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3(3), 61-76.
- 김미령(2012). 연령과 성별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차이 분석. 한국노년학, 32(1), 145-161.
- 김미령(2013). 노후연령인식 여부에 따른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 차이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5(1), 227-245.
- 김미혜(2001). 생산적 복지와 노인고용정책.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논총, 7, 187-213.
- 김상균 외(1996). 21세기 삶의 질에 관한 지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소향 · 이신숙(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2), 309-327.
- 김승용 · 정미경(2006). 손자녀 돌봄에 대한 조모 및 취업모의 인식조사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5), 67-96.
- 김영미 · 유영주(2001).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원주시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과학논집, 5(1), 15-28.
- 김영범 · 이승훈(2008).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서울 및 춘천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노년학, 28(1), 1-18.
- 김영범 · 박준식(2004). 한국노인의 가족관계망과 삶의 만족도: 서울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1), 169-185.
- 김은정 · 정순돌(2011). 맞벌이 가정 영유아 손자녀 양육조모의 삶의 만족도: 양육보상감, 가족관계,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4, 285-310.
- 김정석(2007). 고령화의 주요 사회이론과 담론. 한국노년학, 27(3), 667-690.
- 김주현 · 한경혜(2001). 노년기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한국노년학, 21(2), 209-224.
- 남기민 · 박현주(2010). 노인의 종교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죽음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9, 405-427.
- 박경숙(2003).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과정;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 노동정책연구, 3(1), 103-140.
- 박순미(2011).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3, 305-332.
- 서문진희(2010). 종교와 노인의 우울증 및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교회사회사업, 12, 67-95.
- 양순미 외(2004). 농촌노인의 사회활동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14(2), 145-178.

- 오영희 외(2005).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여성, 농어촌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윤종주(1994). 노인과 사회참여: 그 현황과 전망. 한국노년학. 14(1), 169-178.
- 윤현숙 · 허소영(2007). 노인의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매개효과 및 증재효과. 한국노년학. 27(3), 649-666.
- 이소정 외(2007).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정의(2010). 한국노인의 교육수준별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사회적 관계 및 참여, 건강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0(3), 709-726.
- 이혜자 · 전동일(2011). 농촌, 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1(2), 419-437.
- 이호성(2005). 도시노인의 사회적 유대와 생활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25(3), 123-138.
- 장혜경 외(2005). 가족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전혜정(2003). 한국 노인의 비공식적 지원제공과 정신건강. 노인복지연구. 26, 337-361.
- 정경희 외(2005).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경희 외(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순돌 · 성민현(2012).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 비교. 보건사회연구. 37(4), 249-272.
- 최경희 · 조덕호(2013). 도 · 농노인의 삶의 만족도 분석을 통한 지역별 노인복지정책 우선순위 결정. 도시행정학보. 26(3), 49-70.
- 한형수(2004) 한국사회 도시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9, 113-142.
- 허성호 · 김종대(2011). 2006년 고령화 패널조사에 나타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 분석. 한국노년학. 31(2), 407-418.
- Estes, C.L., Biggs, S. & Phillipson, C.(2003). *Social Theory, Social Policy and Ageing*. Open University Press.
- George, L.(2006). Perceived Quality of Life.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6th ed.* Edited by Binstock, R.H. & George, L.. Elsevier.
- Hooyman, N.R., & Kiyak, H.A.(2005). *Social Gerontology*.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 Klumb & Baltes.(1999). Time use of Old and Very Old Berliners: Productive and Consumptive Activities as Functions of Resource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4(B), 271-278.
- Maddox, G.L.(1987). *The encyclopedia of aging*. New York: Springer.

- Medelye, M. L.(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 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 448-454.
- Moen, P.(1997). Women's roles and resilience: Trajectories of advantage or turning points?, in *Stress and Adversity over the Life Course: Trajectories and turning points*. Edited by Gotlib, I. H. & Wheaton, B..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ugarten, B. L., Havighurst, R.J.&Tobin, S. S.(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134-43.
- OECD(2006). *Society at a Glance*.
- Pillemer, K., Moen, P, Wethington, E. & Glasgow, N.(2000). *Social Integration in the Second Half of Life*. The Johns Jopins University Press.

Social role and life satisfaction of Korean older adults

Lee So-Chu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most typical social role types, namely family care, social participation and work, and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these social role type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older adults. Data from the 1st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n Aging』 was used for analysis. The analysis includes three steps: first, t-test and Analysis of variance was employed to find out the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older adults. Seco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social role types, and to analyze their influences on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lder adults living in larger households and with lower household income tend to show the role of family care. Especially factors such as women with good health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influential. However, the performance of family care role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indicating that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giving care within their families tend to be lower. The determinants of social participation role were contrary to that of the family care role, with high level of income and education acting as major determinants. The life satisfaction of people performing this role type was highest among the three. Last but not least, the determinants of work role were low level of education, those living in rural areas, low age, male and good health. This role type also had positive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The implications are, the society

* Assistant professor, Namseoul University, Department of elderly welfare(snowvill@nsu.ac.kr)

should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the need for care role caused by structural changes, in order to enhanc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lso, programs concerning th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should be activated not only within the public arena but also by induc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Key Words: Older adults, life satisfaction, social role

◆ 2013.08.01. 접수 / 2013.08.27. 1차 수정 / 2013.12.26. 게재 확정